
16.06.B 현대의 개체화 현상

20.06 에피쿠로스의 자연학

18.09 하이퍼리얼리즘

15.11.B 신채호의 아와 비아

21.06 영상 안정화 기술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6.06B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벡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선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 방치(放置)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 연대(連帶)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 표출(表出)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 전락(轉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없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 몰두(沒頭)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1.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화 현상의 다양한 양상들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 ② 개체화 현상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며 그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 ③ 개체화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 ④ 개체화 현상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의 한계와 의의를 평가하였다.
- ⑤ 개체화 현상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사회적 개념들을 비교하였다.

22. **현대의 개체화 현상**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노동자들이 계급적 동질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
- ②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 약화를 초래한다.
- ③ 개인의 거주 공간이 가족 공동의 거주 공간에서 분리되는 추세도 포함한다.
- ④ 벡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의 유대를 모색하게 하는 조건이다.
- ⑤ 바우만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서로 연대하기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이다.

23.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위험 요소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진 현대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다.
- ② ㉡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체의 속성에서 유추하여 사회에 적용한 개념이다.
- ③ ㉠과 ㉡은 모두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 ④ ㉠과 ㉡은 모두 재난의 현실화 가능성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 ⑤ ㉠과 ㉡은 모두 위험의 공간적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2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쫓아내거나 몰아냄.
- ② ㉡: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 ③ ㉢: 겉으로 나타냄.
- ④ ㉣: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
- ⑤ ㉤: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함.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0.06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理神論)적 관점을 주장한다. 그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다.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본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인간은 사후(死後)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여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튕겨 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 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윤리학을 펼쳐 나간다.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피쿠로스 사상의 성립 배경
-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 ② 에피쿠로스 사상의 목적과 의의
- 신, 인간, 우주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③ 에피쿠로스 사상에 대한 비판과 옹호
- 사상의 한계와 발전적 계승을 중심으로
- ④ 에피쿠로스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이견
- 당대 세계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⑤ 에피쿠로스 사상의 현대적 수용과 효용성
- 행복과 쾌락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2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과 ㉢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② ㉠은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를, ㉡과 ㉢은 인간의 사후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③ ㉠과 ㉡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를, ㉢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④ ㉠과 ㉡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⑤ ㉠과 ㉡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은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1.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의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 ㄴ.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그것이 자유 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 ㄷ.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
- ㄹ.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2. 윗글의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라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일체의 훌륭함에 있어서도 탁월한 존재이지. 언제나 신은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성장과 쇠퇴, 분리와 결합에 있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도록 이끈다네.

- ① 신을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보는 <보기>의 생각은,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② 신이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들을 이끈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은,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③ 신을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로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군.
- ④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는 <보기>의 생각은, 행복이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⑤ 신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의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군.

[16~1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09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재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평을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한다.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 기대어 실재와 똑같이 표현하면 ㉢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평으로,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롱프뢰유*의 흐름을 ㉤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에는 헨슨이 있다. 그의 작품 ㉥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1969)는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대상은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와 여자이다. 그녀는 욕망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고,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는 욕망의 객체이며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 카트를 밀고 있는 구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 준다.

이 작품의 기법을 ㉦ 보면, 생활공간에 전시해도 자연스럽도록 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 사람을 보고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발라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또한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제 대신에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시로 채색하여 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여기에 오브제*인 가발, 목걸이, 의상 등을 덧붙이고 쇼핑 카트, 식료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성을 ㉧ 높였다.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작가가 포착한 현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다양하다.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 등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대상들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을 전달하여 감상자와 소통하고 있다.

* 트롱프뢰유(trompe-l'oeil): '속임수 그림'이란 말로 감상자가 실물처럼 착각할 정도로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

* 오브제(objet): 일상 용품이나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쓰지 않고 예술 작품에 사용하는 기법 또는 그 물체.

16. ㉠과 ㉢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당시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아 ㉠을 높였다.
- ②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하이퍼리얼리즘과 달리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③ 하이퍼리얼리즘이 팝아트와 달리 트롱프뢰유의 전통을 이은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 ④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이 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 ⑤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과 ㉢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리얼리즘 유평에 해당한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현한 인체에 실제 사물인 오브제를 덧붙이고 받침대 없이 전시하여 실재처럼 보이게 하였다.
- ② 찰흙으로 원형을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 석고를 덧발라 외형을 뜨는 기법을 사용하여 형태를 정확히 재현하였다.
- ③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욕망의 주체는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욕망의 객체는 실제 그대로 제시하였다.
- ④ 인체의 피부 질감을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따위의 신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 ⑤ 당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상품을 제시하였다.

18. 윗글의 ‘헨슨’의 작품과 <보기>의 작품을 바탕으로 할 때, 작가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평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쿠넬리스, 「무제」

코수스,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

쿠넬리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말 12마리를 화랑 벽에 매어 놓고, 감상자가 화랑이라는 환경 안에 놓인 실제 말들의 존재와 말들의 온기와 냄새, 그리고 소리를 체험해서 다양하게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였다.

코수스는 ‘의자의 사진’, ‘실제 의자’, ‘의자의 언어적인 개념’ 세 가지 모두를 한 공간에 배치하여, 대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 ① 헨슨이 쿠넬리스에게: 미술은 시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이 감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 ② 헨슨이 코수스에게: 미술에서 대상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치 있어야 한다.
- ③ 쿠넬리스가 헨슨에게: 미술에서 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 주형의 기법보다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쿠넬리스가 코수스에게: 미술에서 작품의 의미는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 ⑤ 코수스가 쿠넬리스에게: 미술에서 대상을 재현할 때는 대상의 이미지보다 그 대상 자체만을 제시해야 한다.

19.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누나가 그린 그림을 벽면 한쪽에 기대어 놓았다.
- ② ㉡: 그때는 언니도 노래를 잘 부르는 축에 들었다.
- ③ ㉢: 1학년이 출발한 데 이어 2학년도 바로 출발했다.
- ④ ㉣: 사무실에는 회계를 보는 직원만 혼자 들어갔다.
- ⑤ ㉤: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5.11B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滅絶)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역사적 주체 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지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족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족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17. 윗글에서 다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 ② 신채호 사상에서의 자성의 의미
- ③ 신채호가 밝힌 대아와 소아의 차이
- ④ 신채호 사상에서의 대아의 역사적 기원
- ⑤ 신채호가 지향한 민중 연대의 의의

18. 윗글의 **자성(自性)**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성을 갖춘 모든 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 ②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실현된다.
- ③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④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⑤ 소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1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쓴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의 자성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지·계승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②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비판한 것은, 동양주의로 인해 아의 항성이 작아짐으로써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겠군.
- ③ 신채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 ④ 신채호가 독립 투쟁을 한 것은, 비아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⑤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지향한 것은, 아가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여 억압을 이겨 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06

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번져 흐려지고, 걷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된다. 흔들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영상 안정화 기술이다.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빛을 이용하는 광학적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 등이 있다. 광학 영상 안정화(OIS)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은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자이로 센서, 제어 장치,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렌즈 모듈은 보정용 렌즈들을 포함한 여러 개의 렌즈들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아 피사체의 상이 맺히고, 피사체의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인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에 영상으로 저장된다. 그런데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한다. 이때 OIS 기술이 작동되면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면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안정된다.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중에는 보이스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보이스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중앙에 위치한 렌즈 주위에 코일과 자석이 배치되어 있다. 카메라가 흔들리면 제어 장치에 의해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과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한다. 이 힘이 렌즈를 이동시켜 흔들림에 의한 영향이 상쇄되고 피사체의 상이 유지된다. 이외에도 카메라가 흔들릴 때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 흔들림을 감쇄하는 방식도 이용된다.

OIS 기술이 손 떨림을 훌륭하게 보정해 줄 수는 있지만 렌즈의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다. 디지털 영상 안정화(DIS) 기술은 촬영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로 역동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적용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기술은 촬영된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눈 후 연속된 프레임 간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한다. 움직임을 추정하는 한 방법은 특징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징점으로는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 선택된다.

먼저 k 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들을 찾고, 다음 k+1 번째 프레임에서 같은 특징점들을 찾는다. 이 두 프레임 사이에서 같은 특징점이 얼마나 이동하였는지 계산하여 영상의 움직임을 추정한다. 그리고 흔들림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에서 위치 차이만큼 보정하여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면 보정된 동영상은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그러나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린다. 한편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프레임에서 비어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비어 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내면 프레임들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원래의 프레임 크기를 유지하려면 화질은 떨어진다.

2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
- ②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에도 이미지 센서는 필요하다.
- ③ 연속된 프레임에서 동일한 피사체의 위치 차이가 작을수록 동영상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 ④ 디지털 카메라의 저장 매체에는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가 영상으로 저장된다.
- ⑤ 보정 기능이 없다면 손 떨림이 있을 때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하여 영상이 흐려진다.

26. 윗글의 'OIS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이스코일 모터는 카메라 모듈에 포함되는 장치이다.
- ② 자이로 센서는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영상을 제어 장치로 전달한다.
- ③ 보이스코일 모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한 힘으로 렌즈의 위치를 조정한다.
- ④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 움직임을 정확히 알려도 렌즈 이동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 ⑤ 흔들림에 의해 피사체의 상이 이동하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도록 렌즈나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

27.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점들과 주위 점들의 밝기 차이가 (A), 영상이 흔들리기 전의 밝기 차이와 후의 밝기 차이 변화가 (B)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다. 그리고 특징점들이 많을수록 보정에 필요한 (C)이/가 늘어난다.

- | | A | B | C |
|---|------|------|--------|
| ① | 클수록 | 클수록 | 프레임의 수 |
| ② | 클수록 | 작을수록 | 시간 |
| ③ | 클수록 | 작을수록 | 프레임의 수 |
| ④ | 작을수록 | 클수록 | 시간 |
| ⑤ | 작을수록 | 작을수록 | 프레임의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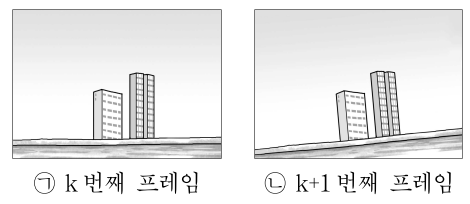
28.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새로 산 카메라의 성능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 OIS 기능을 켜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빌딩을 찍는 순간, 바람에 휘청하여 들고 있던 카메라가 기울어졌다. 집에 돌아와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 소프트웨어로 보정하려 한다.

[촬영한 동영상 중 연속된 프레임]



- ① ①에서 프레임의 모서리 부분으로 특징점을 선택하는 것이 움직임을 추정하는 데 유리하겠군.
- ② ②을 DIS 기능으로 보정하고 나서 프레임 크기가 변했다면 흔들림은 보정되었으나 원래의 영상 일부가 손실되었겠군.
- ③ ①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하고 그 차이를 계산하여 ②을 보정하겠군.
- ④ ①은 OIS 기능으로 손 떨림을 보정한 프레임이지만, ②은 OIS 기능으로 보정해야 할 프레임이겠군.
- ⑤ ②을 보면 ①이 촬영된 직후 카메라가 크게 움직여 DIS 기능으로는 완전히 보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 21~17 & 22.예비 : 45+3 지문

학년도	제재			1등급
17.06	인공신경망	유비논증	음악의 다양한 특성	90
17.09	콘크리트	칼로릭	사단법인	90
17.11	지식의 구분	반추 동물의 탄수화물 분해	보험의 목적과 원리	92
18.06	수기치인	통화정책	DNS 스푸핑	89
18.09	하이퍼리얼리즘	LP 논리	집합의례	93
18.11	자연의 목적론	오버슈팅	엔트로피 부호화	94
19.06	심주지각설	계약	LFIA 키트	91
19.09	CDS 프리미엄	STM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	97
19.11	채권	우주론	가능세계	84
20.06	에피쿠로스의 자연학	금융안정성	개체성	87
20.09	영화와 역사	점유소유	비콘	90
20.11	베이즈 주의	레트로바이러스	BIS	91
21.06	과거제	영상안정화기술	ICT	92
21.09	미학	행정입법	항미생물 화학제	90
21.12	북학파	예약	모델링과 렌더링	88
22.예비	이원론과 동일론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	충전지와 충전기	None

- 23~22 : 24 지문

학년도	제재				1등급
22.06	사회적 차원의 독서	인과관계	베카리아의 형벌론	PCR	90 / 86
22.09	독서 일지	광고의 경제적 효과	반자유의지	메타버스	100 / 96
22.11	독서의 위대함	변증법	브레턴우즈 체제	차량 광각 카메라	85 / 84
23.06	읽기 능력과 메튜 효과	중국과 한국의 역사서	비타민 K의 역할	이중차분법	88 / 84
23.09	노동자 움직임 분석	아도르노의 대중예술	유류분권	검색엔진의 원리	93 / 88
23.11	독서를 활용한 소통	중국과 조선의 유서	법령의 불확정 개념	기초 대수량 측정 방법	96 / 92

- 24학년도 : 12 지문

학년도	제재				1등급
24.06					/
24.09					/
24.11					/

등급컷 화법과 작문 / 언어와 매체

오답 문제들의 (공통 과목 오답 수)/(선택 과목 오답 수) 비율에 따라 표기된 숫자에 비해 등급컷이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16~14 & 14.예비 B : 39+5 지문

16.11.B	도덕적 운 4	지식 경영 4	변론술 4	부력항력 2
16.09.B	설명이론 4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 4	항암제 2	사진 4
16.06.B	호접몽 4	개체화 현상 4	암흑 물질 2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4
15.11.B	신채호 4	시민사회론 4	슈퍼문 2	취미 판단 4
15.09.B	맹자의 의 5	목란화 4	지방 정책 결정 3	점탄성 2
15.06.B	작가주의 4	정합설 4	별의 밝기 2	광고 규제 4

14.11.B	사소절 2	심신이원론 3	간접광고 4	전항력 2	베토벤 3
14.09.B	주희와 정약용 4	미술 종말론 3	공동 소송 4	돌림힘 2	30 1
14.06.B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 4	디지털 저작권 3	캄피돌리오 광장 4	단안 단서 2	30 1

14.예비.B	석가탑 2	데카르트 3	계층 귀속 의식 3	태양 4	매헌에게 씀 2
---------	----------	-----------	---------------	---------	-------------

- 16~14 & 14.예비 A : 32+3 지문

16.11.A	돌림힘 3	광통신 3	귀납과 연역 5	
16.09.A	해시 함수 3	산패 3	경쟁정책 5	
16.06.A	지문인식 3	원자 모형 3	메타 윤리학 5	
15.11.A	단백질 분해 4	디지털 영상 3	공공서비스 4	
15.09.A	취기재 3	CPU 스케줄링 3	자연법 5	
15.06.A	조명 기구 2	고고학 4	원유 살균법 2	인센티브 계약 3

14.11.A	불꽃반응 3	송선교 3	토인비의 역사 연구 2	CD 드라이브 3	
14.09.A	동물의 길찾기 3	CT 촬영 3	실재론과 반실재론 세계관 2	한옥의 창호 3	
14.06.A	빛의 산란 3	플래쉬 메모리 3	냉전 시대의 원인 2	입증 책임 2	30 1

14.예비.A	역사가들의 입장 차이 3	스마트폰의 위치 추정 3	법률 해석 3
---------	------------------	------------------	------------

- 13~11 : 45 지문

13.11	귀납과 연역 4	영화와 만화 4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3	연금 제도 4	음성 인식 기술 3
13.09	공자의 예 4	반도체 소자 3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3	고대 사회의 놀이 4	바실리카식 성당 4
13.06	헤로도토스의 역사 4	나무의 물수송 3	이차 프레임 기법 4	하드디스크 3	자유 위임 방식 4

12.11	그림 이론 4	소리 그늘 4	외부성 2	중국의 한자음 학습 3	바로크 양식 4	불확정성 원리 4
12.09	대응설,정합설,실용설 4	데카르트 좌표계 3	영화적 관습 4	중간 언어 3	한계 비용 3	샘플링과 양자화 4
12.06	일치법과 차이법 3	혁신의 확산 3	플레밍의 진공관 4	영향미학과 작품미학 4	높임 표현 선택 3	근육 4

11.11	자산의 개혁 조치 4	뮤지컬 4	자료 구조 2	그레고리력 5	합성어 3	채권 가격 3
11.09	상대성이론 2	과거의 독서 방식 3	J 커브 현상 4	공리주의와 반공리주의 4	가스 센서 3	
11.06	사막의 특성 4	회화적 재현 5	광고의 효과 4	자동차의 엔진 3	한글과 한자 혼용 방식 3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01. ④ 02. ⑤ 03. ①
 04. ④ 05. ⑤ 06. ③ 07. ② 08. ⑤ 09. ②
 10. ④ 11. ⑤ 12. ② 13. ⑤
 14. ③ 15. ④ 16. ④ 17. 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3	① ④ ①
4~9	③ ① ⑤ ⑤ ③ ①
10~13	② ④ ② ④
14~17	② ⑤ ⑤ 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3	① ⑤ ④
4~9	① ③ ④ ① ② ③
10~13	① ② ④ ③
14~17	① ⑤ ④ ②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	② ⑤ ①
4~9	① ③ ④ ③ ② ③
10~13	② ⑤ ⑤ ④
14~17	④ ② ④ 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3	① ③ ⑤
4~9	② ③ ② ① ③ ⑤
10~13	⑤ ④ ⑤ ④
14~17	⑤ ③ ① 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3	⑤ ① ③
4~9	③ ④ ④ ② ② ①
10~13	③ ⑤ ④ ②
14~17	① ② ④ ②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21	① ④ ⑤ ③ ④ ③
26~30	⑤ ③ ① ④ ②
34~37	② ② ④ ④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25	④ ① ① ② ③ ③
26~30	⑤ ① ⑤ ④ ③
34~37	① ② ③ ③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6~21	① ④ ② ④ ⑤ ④
25~28	① ② ② ②
29~33	② ⑤ ④ ③ ③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5~10	⑤ ① ① ④ ③ ③
16~21	② ⑤ ④ ① ② ④
30~34	② ② ② ③ 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20	② ② ④ ⑤ ②
26~29	⑤ ① ③ ①
37~42	① ③ ④ ⑤ ⑤ ③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1~26	④ ③ ① ⑤ ② ④
27~31	⑤ ⑤ ② ③ ①
38~41	⑤ ⑤ ③ ③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9~22	② ④ ⑤ ⑤
27~31	④ ③ ① ③ ②
37~42	③ ④ ⑤ ② ① ④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20	③ ⑤ ① ③ ①
27~32	② ⑤ ④ ⑤ ② ②
39~42	① ② ③ ④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1~25	② ④ ② ③ ①
29~32	② ③ ① ⑤
33~38	⑤ ④ ② ① ④ ③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6~21	② ④ ③ ③ ② ⑤
22~26	③ ② ① ③ ⑤
35~38	③ ① ④ ②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19	⑤ ③ ② ③
27~32	① ⑤ ① ④ ③ ②
38~42	② ② ⑤ ④ ④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6~19	① ⑤ ③ ②
27~32	③ ④ ② ⑤ ⑤ ③
38~42	③ ④ ① ① ②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6~21	⑤ ② ③ ① ② ①
22~25	① ⑤ ① ⑤
30~34	④ ③ ② ⑤ ②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20	② ④ ⑤ ⑤ ②
33~36	⑤ ④ ① ③
37~42	③ ④ ⑤ ① ④ ①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5~30	① ⑤ ④ ④ ④ ②
31~34	⑤ ② ⑤ ④
35~39	⑤ ① ⑤ ⑤ ②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6~19	③ ⑤ ③ ③
20~24	⑤ ⑤ ③ ② ①
28~33	④ ① ④ ③ ② ④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17~20	⑤	①	①	④	
21~24	③	③	③	②	
25~28	①	③	⑤	②	
29~30	④			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형					
16~18	⑤	②		④	
19~21	②	③		③	
22~26	⑤	①	⑤	⑤	①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B형					
17~20	⑤	①	④	④	
21~24	④	③	③	⑤	
25~26	⑤			②	
27~30	①	④	④	①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A형					
16~18	③	①		②	
19~21	④	③		④	
22~26	④	③	⑤	④	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B형					
17~20	②	②	③	④	
21~24	③	②	③	①	
25~26	⑤			④	
27~30	④	⑤	④	①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A형					
16~18	①	③		④	
19~21	②	①		①	
22~26	④	⑤	⑤	④	②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17~20	④	④	③	③	
21~24	①	②	①	⑤	
25~26	②			④	
27~30	⑤	④	①	④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형					
16~19	③	①	③	②	
20~22	③	②		③	
23~26	④	②	②	③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B형					
17~21	⑤	④	①	②	①
22~25	①	⑤	④	⑤	
26~28	①	④		⑤	
29~30	④			③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A형					
16~18	③	③		②	
19~21	②	④		④	
26~30	③	④	④	⑤	②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B형				
17~20	④	①	④	⑤
21~24	④	①	⑤	③
25~26	⑤			③
27~30	①	④	④	①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A형				
20~21	⑤			⑤
22~25	③	④	⑤	④
26~27	⑤			①
28~30	⑤	②		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17~18	④			④
19~21	⑤	③		②
22~25	⑤	⑤	①	②
26~27	③			②
28~30	⑤	④		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형				
16~18	⑤	③		④
19~21	②	⑤		④
22~23	①			③
28~30	④	④		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B형				
17~20	④	④	⑤	①
21~23	①	③		①
24~27	①	②	④	②
28~29	④			⑤
30		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A형				
16~18	④	③		③
19~21	④	②		①
26~27	③			①
28~30	②	⑤		④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B형				
17~20	④	①	④	⑤
21~23	⑤	④		④
24~27	⑤	②	③	④
28~29	④			①
30		③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A형				
16~18	①	③		③
19~21	①	②		③
26~27	③			④
28~29	①			④
30		④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1~24	⑤	②	④	④
25~28	①	④	③	③
29~31	⑤	⑤		②
39~42	③	①	⑤	①
43~45	③	③		④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3~16	⑤	④	⑤	④
17~19	④		③	②
24~26	③		①	①
31~34	⑤	②	①	②
40~43	③	③	⑤	④
44~46	④		③	④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9~22	①	⑤	②	⑤
23~25	③		④	②
30~33	④	⑤	④	⑤
41~43	③		①	②
44~46	①		③	①
47~50	①	⑤	④	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시행 B형				
17~18	③			④
19~21	④		③	④
22~24	④		②	①
25~28	①	⑤	③	④
29~30	⑤			②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시행 A형				
16~18	②		④	⑤
19~21	③		④	①
22~24	①		⑤	②
29~30	③			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7~20	④	⑤	①	④
21~24	③	⑤	③	②
29~30	②			①
40~42	②		②	①
43~46	③	④	④	①
47~50	⑤	①	⑤	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7~20	①	②	①	④
21~23	③		④	③
24~27	③	②	④	①
28~30	①		④	⑤
35~37	⑤	⑤		③
47~50	③	②	①	②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3~15	④		①	②
16~18	④		④	③
29~32	①	④	④	①
33~36	②	⑤	⑤	④
44~46	③		②	①
47~50	⑤	③	②	④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7~20	⑤	⑤	①	②
21~24	①	①	③	③
25~26	③			①
32~36	③	③	②	⑤
37~39	⑤		④	③
44~46	③		④	③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9~20	②			①
25~27	②		②	①
28~31	②	②	③	①
39~43	③	③	③	④
44~47	②	③	⑤	⑤
48~50	①		⑤	③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3~14	①			①
15~18	④	③	①	④
23~27	①	③	③	⑤
32~35	⑤	③	⑤	①
36~38	②		②	①
44~46	①		②	②
총 763문제	☆ 수고하셨습니다 ☆			